



2013년 1월 11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기술적분석 | 김철중 ☎ 3276-6247
계량/파생 | 안 혁 ☎ 3276-6272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CHART OF THE WEEK: 연준 유동성 공급 언제까지?

• 이머징마켓 동향

수출 예상 밖 호조, 중화권 증시 상승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LG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농심 외 5종목

• 기업분석

KT, 다우기술, 대한항공, 모두투어, 한국전력,

비아트론, 현대차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1/03(목)	01/04(금)	01/07(월)	01/08(화)	01/09(수)	01/10(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19.41	2,011.94	2,011.25	1,997.94	1,991.81	2,006.80
	등락폭	-11.69	-7.47	-0.69	-13.31	-6.13	14.99
	등락종목						
	상승(상한)	443(6)	419(10)	393(10)	370(12)	379(9)	473(12)
	하락(하한)	376(1)	377(0)	398(1)	430(1)	429(1)	308(3)
	ADR	102.56	105.25	106.00	106.25	106.15	108.17
	이격도						
	10 일	101.20	100.68	100.55	99.89	99.53	100.16
	20 일	102.04	101.48	101.25	100.45	100.04	100.67
코스닥	투자심리	70	70	60	50	50	50
	거래량 (백만 주)	485	373	533	490	598	495
	거래대금 (십억 원)	5,988	4,677	3,942	3,904	3,944	4,471
	코스닥지수	499.07	504.84	508.72	509.01	511.94	514.48
	등락폭	-2.54	5.77	3.88	0.29	2.93	2.54
	등락종목						
	상승(상한)	429(14)	566(12)	529(10)	436(12)	483(7)	508(5)
	하락(하한)	500(1)	326(2)	390(0)	481(1)	421(0)	408(1)
	ADR	96.95	100.50	101.82	105.66	109.29	109.87
코스닥	이격도						
	10 일	102.24	103.01	103.26	102.70	102.59	102.47
	20 일	101.90	103.02	103.74	103.67	104.02	104.26
	투자심리	40	50	60	70	80	80
	거래량 (백만 주)	384	395	412	426	494	427
	거래대금 (십억 원)	1,728	1,862	1,804	1,737	1,851	1,801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250.5	1,199.2	1,006.6	223.6	210.9	287.9	37.0	32.9	185.8	44.4
	매도	2,206.6	1,211.7	1,039.0	375.9	133.4	263.3	55.6	26.4	158.4	43.4
	순매수	43.9	-12.5	-32.5	-152.3	77.5	24.6	-18.6	6.5	27.3	1.1
	01 누계	68.5	347.6	-391.9	-144.6	223.9	-374.5	-115.1	33.0	22.9	-24.1
	13 년 누계	68.5	347.6	-391.9	-144.6	223.9	-374.5	-115.1	33.0	22.9	-24.1
코스닥	매수	1,615.4	76.0	113.9	12.9	18.2	40.5	7.6	4.3	25.2	16.0
	매도	1,635.0	70.8	99.6	16.4	20.8	30.3	7.9	4.2	17.4	15.8
	순매수	-19.7	5.2	14.3	-3.5	-2.6	10.2	-0.3	0.1	7.8	0.2
	01 월 누계	-104.3	16.7	97.3	15.5	18.2	36.8	5.5	-5.9	21.6	-9.8
	13 년 누계	-104.3	16.7	97.3	15.5	18.2	36.8	5.5	-5.9	21.6	-9.8

CHART OF THE WEEK: 연준 유동성 공급 언제까지?

1월 월간 밴드	1,950-2,080pt
2013년 연간 밴드	1,780-2,400pt
12MF PER	9.6배
12MF PBR	1.08배
Yield Gap	7.7%P

- ▶ 연준 통화정책 무게 중심: 물가 안정 → 고용 촉진으로 이동
- ▶ 양적완화 조기 종료 우려되나, 실업률 목표 달성 이전에 조기 종료될 가능성 낮음
- ▶ 취업자 수 현재와 같이 증가하면, 적어도 2015년 12월까지 초저금리 지속

■ 연준의 유동성 공급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연준, 6.5%의 실업률 타깃 설정

올해는 세계 주요국의 양적완화로 인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무엇보다 연준이 작년 12월 FOMC 회의 결과 6.5%의 실업률 타깃을 설정하고, 고강도 경기 부양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이 시장의 기대를 키웠다.

12월 FOMC 의사록 공개되며 양적완화 조기 종료 가능성 제기

그러나 지난 3일(현지 시간)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양적완화의 연내 종료 가능성이 제기됐다. 여러(several) 위원이 지나친 채권 매입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연내 매입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국채 금리와 주식시장은 양적완화 조기 중단 여부가 논의되었다는 사실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실업률 6.5% 하회, 인플레이션 전망치 2.5% 상회 또는 부작용 발생시 유동성 공급 중단

연준이 양적완화를 조기에 종료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버냉키 의장은 실업률이 6.5% 아래로 떨어지거나 1~2년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2.5%를 웃돌 때는 양적완화를 종료할 것이고, 새로운 시장 정보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를 포함한 자산 매입의 효과가 크게 떨어지거나 금융시장 리스크가 상승할 경우 경제지표가 목표 수준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실업률 목표 달성 이전 조기 종료 가능성은 낮음

그러나 버냉키 의장이 시장과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업률 목표 달성 이전 조기 종료 가능성은 낮다.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한 배경에는 연준 정책에서 초래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 연준이 목표하는 경제 지표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비전통적인 팽창적 통화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특정 수치를 제공하는 이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정책 실패의 오명을 얻는 동시에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

인플레이션 전망 보수적, 통화정책 무게 중심은 물가에서 고용으로 이동

물론 연준의 향후 1~2년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2.5%를 상회할 때 역시 양적완화가 종료될 수 있다. 일단 현재 연준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보수적이다. 12월 회의에서의 물가상승률 추정치는 9월 회의보다도 더 낮아졌다. 통화정책의 무게 중심이 물가 안정에서 고용 촉진으로 이동한 만큼 인플레이션이 다소 희생되더라도 고용률 제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엘런 부의장은 현재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최대한도라고 보지 않으며, 약간 높은 인플레이션은 연준 정책인 균형 통화정책 목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표 1〉 연준 경제지표 추정치 밴드: 9월에 비해 실업률, 인플레이션 전망치 낮아짐 (단위: %)

		2012	2013	2014	2015	장기
실업률	12 월 FOMC	7.8~7.9	7.4~7.7	6.8~7.3	6.0~6.6	5.2~6.0
	9 월 FOMC	8.0~8.2	7.6~7.9	6.7~7.3	6.0~6.8	5.2~6.0
PCE	12 월 FOMC	1.6~1.7	1.3~2.0	1.5~2.0	1.7~2.0	2.0
인플레이션	9 월 FOMC	1.7~1.8	1.6~2.0	1.6~2.0	1.8~2.0	

주: 상위 3개와 하위 3개 추정치를 제외한 범위

자료: 연방준비은행, 한국투자증권

취업자 수 현재와 같이 증가
할 때, 2015년 12월까지
초저금리 지속

그렇다면 실업률이 6.5%가 되는 날은 언제쯤일까? 애틀랜타 연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Jobs Calculator를 통해 이를 계산할 수 있다. 2011년 월별 취업자 증가수가 평균 153,333명, 2012년에 152,917명이었으므로 향후 비슷한 크기로 취업자가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3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적어도 2015년 12월까지 초저금리가 지속된다는 의미다. 유동성 측면에서는 위험자산에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2〉 목표 실업률 6.5%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취업자 증가분: 약 36개월 예상

소요 기간	종료 시기	매월 취업자 증가분	총 취업자 증가분
12 개월	2013 년 12 월	261,878 명	3,142,536 명
24 개월	2014 년 12 월	183,937 명	4,414,488 명
36 개월	2015 년 12 월	157,956 명	5,686,416 명
48 개월	2016 년 12 월	144,966 명	6,958,368 명

자료: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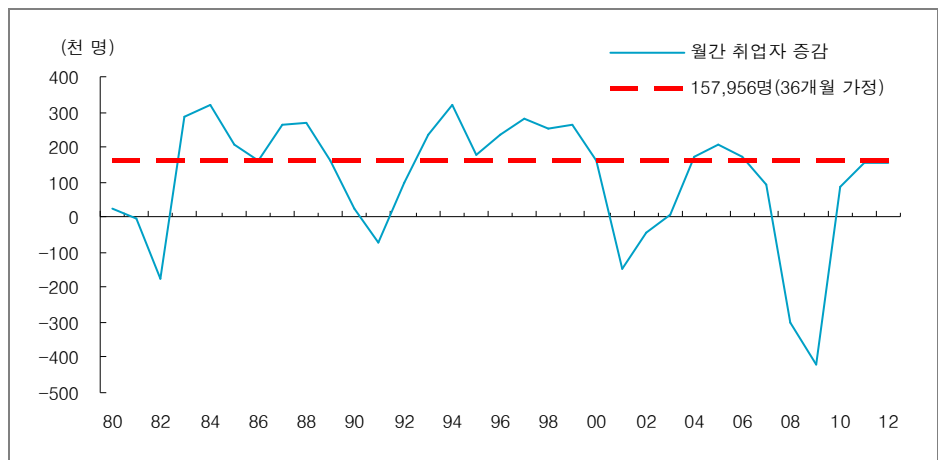
〈표 3〉 미국 고용 동향

항목	현재 수치
민간 경제활동 인구 (16 세이상, CPS, 가구 조사)	244,350,000 명
고용 (CPS)	143,305,000 명
고용 (CES, 사업체 조사)	134,021,000 명
실업 인구 (CPS)	12,206,000 명
민간 노동 인구 (CPS)	155,511,000 명
실업률 (CPS)	7.8%
(a) 경제활동 참가율 (CPS)	63.6%
(b) 월간 평균 인구 증가율 (최근 12 개월 평균)	0.078%
(a)와 (b)가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1 월 취업자 증가율	0.0761%

주: 2012년 12월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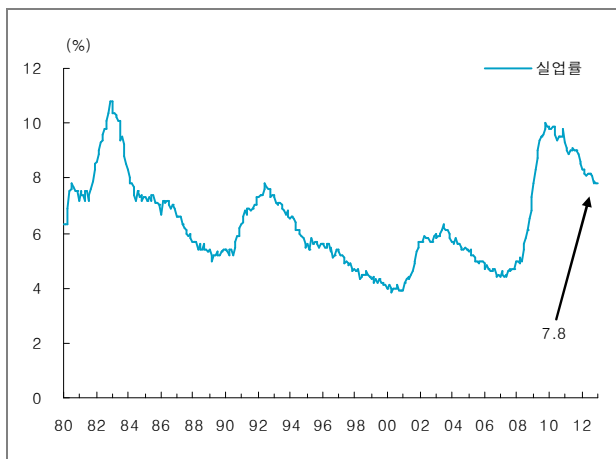
자료: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Current Employment Statistics(CES), Current Population Survey(CPS), 한국투자증권

[그림 1] 미국 월간 비농업부분 취업자 증감 (연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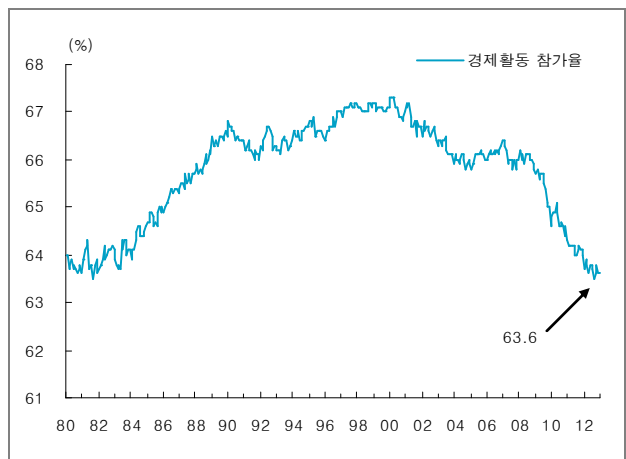
자료: 미국 노동 통계청, 한국투자증권

[그림 2] 미국 실업률: 2012년 12월 7.8%



자료: 미국 노동 통계청, 한국투자증권

[그림 3] 미국 경제활동 참가율: 2012년 12월 63.6%



자료: 미국 노동 통계청, 한국투자증권

수출 예상 밖 호조, 중화권 증시 상승

- ▶ 중국 해관총서, 12월 수출 및 수입 증가율 각각 14.1%, 6%로 큰 폭 개선
- ▶ 중국 인민은행, 12월 위안화 신규대출 4,543억 위안으로 3년 만에 최저
- ▶ 중국, 원전건설 프로젝트 20개월 만에 본격 재개, 동부연안 지역에 집중 - 신량재경

상해증시 소폭 반등
철강, 미디어, 통신장비,
운송주 강세 주도
석탄, 식품 등 약세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사흘 만에 소폭 반등했다. 거래금액은 982억 위안으로 직전일 대비 축소됐다. 오전에 발표된 중국의 12월 수출입 지표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 호재였다. 수출이 예상을 크게 웃돌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회복했고 수입과 무역수지도 직전 수치를 상회했다.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로 해운주가 급등했고 바오산철강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이 급증했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철강주도 크게 올랐다. 원전건설 프로젝트가 20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됐다는 소식도 긍정적인 재료였다. 신규대출 예상 하회, 식품가격 급등에 따른 불확실성과 차익실현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다. 업종별로는 미디어(+1.8%), 통신장비(+1.4%), 부동산(+1.3%), 섬유/의류(+1.2%), 철강(+1.1%), 운송(+0.9%), 여행(+0.9%), 전력설비(+0.9%), IT(+0.8%), 헬스케어(+0.7%), 화학(+0.5%), 기계(+0.5%), 전력(+0.4%), 증권(+0.3%), 건설(+0.3%), 시멘트(+0.2%) 등이 올랐다. 반면 석탄, 음식료 관련주는 약세를 나타냈다.

■ 홍콩 시장

홍콩 H지수는 1% 가까이 올라 이틀째 강세를 나타냈다. 위안화 절상 압력 및 춘절 특수에 대응하기 위해 인민은행이 조만간 기준율을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지된 가운데 12월 중국 수출지표가 예상 밖에 호조를 보인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12월 신규대출 지표가 부진했으나 채권, 신탁대출 등 모든 자금조달 수단을 포함한 사회융자총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시중 유동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모든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자동차주가 가장 많이 올랐고 동풍자동차, 광저우자동차 등 일본계 브랜드의 중국 파트너가 연일 급등세를 지속했다. 그 외에 항공, 은행, 석탄주의 강세가 두드러졌고 보험, 전력, 정유주도 소폭 상승했다.

H지수 1% 가까이 상승
자동차와 항공, 은행주
큰 폭 상승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 분	1/10(목)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283.66	0.37	0.64	0.64	0.64
홍콩 H	11,931.47	0.96	-0.47	4.33	4.33
인도 SENSEX	19,629.42	-0.19	-0.68	1.04	1.04
러시아 RTS	1,570.43	0.12	3.75	2.85	2.85
브라질 보베스파	61,578.58	0.74	-1.55	1.03	1.03
베트남 VN	460.12	2.53	9.74	11.21	11.21
MSCI 이머징마켓	1,073.03	0.30	-0.89	1.69	1.69

주: 10일 오후 5시 40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며 코스닥 510P선 안착에 성공

- 미국 증시는 알코아의 지난해 4분기 실적에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증시에 호재로 작용, 나흘만에 상승세로 마감. 기업들의 실적 악화 우려 및 옵션만기를 앞두고 물량 부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며 약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중국의 지난달 수출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폭을 확대, 6거래일 만에 상승반전하며 2,000P선 회복에 성공.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닥은 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간 기관과 외국인에 힘입어 닷새째 상승세로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오는 14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로 인상된다는 소식에 한국전력이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쌍용차는 최대주주 마힌드라가 신차 개발 등을 위해 약 1조원의 자금을 투자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한가를 기록. 중국 기업들이 국내 중소형 화장품 업체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재부각되며 코리아나가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임. 또한,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한 과학, 영인프린터 등 과학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급등. 반면, 생산 중단이 지속되며 상장폐지 우려감이 고조된 파나진과 1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글로스테크는 나란히 하한가를 기록

종목/테마	내 용
한국전력(015760) ▶32,800(+3.63%)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겨울철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블랙아웃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오는 14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 인상된다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 - 주택용과 산업용은 각각 2.0%, 4.4%, 일반용과 교육용이 각각 4.6%, 3.5%, 농사용은 3.0% 인상됐으며, 예상보다 빠른 요금 인상에 힘입어 흑자전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쌍용차(00362) ▶5,990(상한가)	최대주주의 1조원 투자소식에 상한가 - 최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향후 4년간 약 1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할 것이라는 보도가 전해지며 상한가 - 자금은 외부차입, 내부충당, 증자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으로 이는 향후 4~5년간 신차 3종과 엔진 6개 개발을 위해 사용될 예정
화장품 관련주	중국 기업으로의 피인수 기대감에 강세 - 막대한 자본과 유통망을 갖춘 중국 기업들이 국내 중소형 화장품 업체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 - 코리아나(027050, 상한가), 한국화장품(123690, +10.97%), 한국화장품제조(003350, +5.10%), 한국콜마(161890, +4.32%) 등 강세
과학기자재 관련주	미래창조과학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 -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강세 - 대한과학(131220, +12.27%), 영인프린터(036180, +9.05%), 서린바이오(038070, +5.43%), 다원시스(068240, +3.62%)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LG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LG (003550)	66,400 (-0.9)	67,000 (01/03)	-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했던 LG전자가 휴대폰 부문의 실적 개선, OLED TV 출시 등으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며, LG화학도 화학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보소재 등으로의 사업다각화를 통해 견조한 수익성 유지하고 있음 -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세를 감안하면 NAV 대비 할인율이 50%에 달하는 저평가 매력에 재부각될 가능성 상존
대양전기공업 (108380)	13,000 (+0.4)	12,950 (1/2)	- 선박용 조명기구 전문회사로 해양 플랜트 조명으로 사업영역 확대. 추가로 군함용 통신시스템 및 배전반을 생산하고 있으며, 자동차용 센서를 신사업으로 추진 - 주력인 선박 조명과 플랜트, 방산 등 전 분야에서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동차용 압력 센서에 대한 국내 완성차업체의 국산화 의지와 맞물려 2013년부터 가시적인 성과 기대
MDS테크 (086960)	13,850 (+2.6)	13,500 (1/2)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OS, 애플리케이션, 개발툴) 전문업체로 차량 및 국방/항공 분야 I T융합 수요 확대 등으로 중장기 성장성 부각 가능성. - 4분기에는 계절성(연말 고객사 SW관련 예산 소진)과 더불어 현대오트론 등 자동차 전자회사향 매출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 재개 예상 - 성장성, 기술 경쟁력, 진입장벽 등을 감안할 때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동일금속 (109860)	13,400 (-1.5)	13,600 (1/2)	- 크롤러크레인 트렉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국내외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제품다변화를 통해 2012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전망 - 글로벌 광산 개발투자 확대에 따른 초대형 굴삭기 트렉슈 수요 증가세 지속 전망 - 독창적 아이টে็ม으로 가격 경쟁력, 일괄공정체제로 원가경쟁력
엠케이전자 (033160)	4,350 (-6.3)	4,640 (1/2)	- 최근 본딩와이어 시장은 비용부담이 큰 골드(Gold)본딩와이어의 대체품으로 구리를 사용한 본딩와이어(PCC; Pd Coated Copper Wire)가 개발돼 시장 구조의 변화가 진행 중임, 당사는 글로벌 구리본딩와이어 시장에서 일본 NMC사에 이어 M/S 2위 기록 중 - 현재 구리본딩와이어는 대만 패키지 업체들로 주로 공급되고 있으나, 향후 국내 칩메이커들로도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PCC의 매출 확대에 의해 2%대에 불과하던 영업이익률은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로엔 (016170)	14,900 (+8.4)	13,750 (1/2)	- 2013년 음원가격 상승으로 멜론 서비스의 가입자당 매출액(ARPU) 증가와 함께 SKT와의 공동 마케팅으로 인한 가입자 증가에 따른 성장성 부각 가능성 - 저작권 보호, 콘텐츠 수요 확대 등 우호적인 산업, 보유 아티스트 라인업 확대, 수직 계열화된 사업부문의 경쟁력, 경쟁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 등을 주목할 필요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LG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농심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2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농심 (004370)	289,000 (+6.3)	272,000 (01/03)	2,148	133	128	22,127	13.1
			- 삼다수사업 철수, 벤조피렌 이슈 등으로 주가 부진했으나, 자체 브랜드 '백산수' 런칭과 프리미엄 신제품 (블랙신컵 및 신라면블랙) 판매 호조, 수출 증가 등을 주목할 필요 - 라면시장 점유율 회복, 경쟁구도 안정화, 제품라인업 강화, 기저효과 등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전망				
LS (006260)	95,900 (+0.9)	95,000 (1/2)	13,604	596	356	12,829	7.5
			- 2013년에는 LS전선과 LS산전의 실적 개선 예상. LS전선은 고수익 제품인 해저전력선의 해외 프로젝트가 실적에 반영되고 중동 초고압 전력선의 호황기 진입에 따른 실적 개선 예상 - 또한 LS산전은 이라크를 필두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확대, 신규 사업 적자 축소 등으로 영업이익 개선 예상. LS니코동제련도 도시광산 자회사의 성장으로 이익 증가 전망				
삼성전자 (005930)	1,530,000 (-2.9)	1,576,000 (1/2)	230,152	34,702	27,841	184,578	8.3
			- 갤럭시S3의 판매 호조에 따른 스마트폰 판매 증가 및 이익률 상승으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 휴대폰 부문의 캐시카우 역할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실적 개선 본격화로 2013년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NHN (035420)	229,000 (+0.7)	227,500 (1/2)	2,694	779	580	13,205	17.3
			-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높은 검색 점유율 유지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인 '라인(LINE)'의 일본 등 해외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로 중장기 성장원 확보 - 워닝일레븐 온라인 등 신규 대작 게임들의 출시로 웹보드게임 부진을 만회할 전망				
KCC (002380)	299,000 (-1.0)	302,000 (1/2)	3,731	271	264	26,935	11.1
			- 2012년 하반기부터 주택 입주량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함에 따라 이익의 Down-side Risk 완화. 전략적 지분 매입을 통한 Captive market을 확보하고 있어 경쟁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 안정성 확보 - 전방산업의 업황 바닥 통과 가능성, 수직 계열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 이익 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LG화학 (051910)	327,500 (-3.7)	340,000 (1/2)	24,430	2,296	1,740	23,666	13.8
			-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다각화된 사업구조와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으로 안정적인 이익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LCD용 유리기판, 2차전지 등 장기 성장성을 주목할 필요 -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 개선, 정보전자소재 및 전지 제품의 판매량 증가 등으로 실적 개선 기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전자, LG화학, NHN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NHN 발행주식의 자기주식취득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KT(030200)

매수(유지)

목표가: 48,000원(유지)

종가(1/9): 36,000원

4Q12 Preview: 수익성은 예상 수준, LTE 경쟁력 회복세

■ 4분기 영업실적은 예상 수준

4분기 영업실적은 시장 예상치 수준으로 추정된다. 매출액과 순이익은 각각 6조 3,191억원, 2,002억원으로 시장 예상치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이익이 1,333억원으로 시장 예상치(2,827억원)를 하회하는 것은 4분기부터 부동산 및 구리선 등 자산매각이익(4분기 2,000억원)을 영업수익이 아닌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4분기 매출액은 단말기 판매 감소, 자산매각이익 회계 변경(3분기에는 2,940억원을 매출로 반영)으로 전분기 대비 3.1% 감소할 것이며 전년동기 대비로도 0.9% 감소할 전망이다. 순이익도 매각이익이 감소한 데다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소급 적용(8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8%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등 매각이익은 2011년 4분기 3,000억원에서 2,14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 13년 조정 순이익은 LTE 효과, 자회사 실적 호전으로 23.1% 증가 예상

LTE 효과로 수익이 호전될 것이다. LTE 가입자수가 6월 117만명(비중 7.1%)에서 9월 249만명(15.1%), 12월 390만명(23.6%)으로 빠르게 늘었다. 이에 따라 가입자당 매출액(ARPU)이 전분기 대비 2.1%(전년동기 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에는 LTE 가입자가 700만명(41.5%)으로 늘어 ARPU도 4.6% 증가할 전망이다. 2013년 순이익은 LTE의 ARPU 증대 효과와 자회사 손익 개선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할 것이며 KT렌탈 관련 회계적인 매각이익(1,264억원)을 제외하면 23.1% 증가할 전망이다.

■ 비통신 자회사의 성장성이 높아

국내 최대 미디어 사업자의 위상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 11월 KT그룹 미디어 사업(IPTV, Skylife)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27.5%(가입자 597만명)로 2년 만에 6.7%p 상승했다. 이외에 KT렌탈, BC카드 등 비통신 자회사의 이익 기여도가 높아질 것이다.

■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48,000원 유지

KT에 대한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48,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12MF EPS에 목표 PER 9.1배(과거 4년 평균을 2.6% 할인)를 적용해 산출했다. 매수를 유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Valuation 매력이 높다. 배당수익률이 5.6%에 달하고 12MF PER이 6.8배로 낮다. 2) 2013년에 LTE의 경쟁력 회복으로 수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3) 미디어, 렌탈 등 비통신 사업의 성장성이 높다. 4) 부동산(15년 매출액 8,500억원), 동케이블(매장량 32만km) 등 유휴자산의 현금화는 배당여력을 높일 것이다. 리스크 요인은 가입비 등 요금인하 압력이다. 가입비 폐지시 연간 영업이익은 1,100억원 줄고 주당순이익은 6.7% 감소할 것이다. 3사 중 영향은 가장 작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20,326	2,008	1,681	1,296	5,329	136.4	5,247	8.7	3.7	1.0	12.0
2011A	21,990	1,974	1,598	1,447	5,946	11.6	4,965	6.0	3.8	0.7	12.7
2012F	24,370	1,619	1,557	1,166	4,788	(19.5)	4,867	7.4	3.8	0.7	9.7
2013F	25,502	1,615	1,688	1,286	5,277	10.2	4,925	6.8	3.7	0.7	10.0
2014F	25,654	1,700	1,793	1,331	5,462	3.5	4,929	6.6	3.7	0.6	9.7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월 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다우기술(023590)

매수(유지)

목표가: 22,000원(유지)

종가(1/9): 16,250원

낮아질 변동성 & 높아질 기업가치

■ 높은 주가 변동성이 낮아질 전망

다우기술은 시가총액이 7,290억원에 이르는 중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소형주와 같은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며 증장기 투자의 걸림돌이 되어왔다. 일례로 2012년을 10,350원으로 시작한 주가는 16,500원(1/10)까지 상승 → 10,650원(4/26)으로 하락 → 17,450원(10/2)상승 → 13,750원(12/12)으로 하락 등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변동성은 향후 축소될 전망이다. 주가 저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견조한 자체 영업성장 모멘텀을 통해 기업가치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자체 영업이익 증가율이 지난 4년간 35%에 이르고, 핵심 가치인 키움증권과의 주가상관계수도 0.56에 그친 점을 고려할 때 그동안의 주가변동이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상의 이슈였고, 둘째, 키움증권과 사람인에이치알로 대표되는 유가증권가치 역시 주식시장 저점확인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성장성이 부각될 전망이다.

■ 당사 전망을 상회하는 견조한 4분기 실적

다우기술은 4분기중 주요 사업부문인 솔루션, 인터넷서비스, SM 모두 견조한 매출증가를 통해 매출과 자체영업이익은 각각 563억원과 67억원으로 당사의 기존 전망(535억원과 65억원)을 무난히 충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체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6.3% 증가한 반면 전년동기 대비로는 6.6% 하락한 수준이지만, 2011년 4분기는 SI업체의 사업 특성상 정산문제 등으로 연간영업이익 기여도가 41% 이르는 예외적인 분기였음을(참고로 12년 4분기 기여도는 29%) 고려하면 동등비교는 적절치 않다. 오히려 4분기 실적 자체는 문자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서비스의 성장과 키움증권으로부터의 안정적인 수주 등 견조한 매출증가를 통해 분기별로 사상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긍정적인 2013년 이슈: 공공SI 수주 확대 및 IFRS연결재무제표 도입

2013년 동사의 주요 이슈는 대기업의 공공SI수주제한에 따른 수혜와 IFRS연결재무제표 도입에 따른 회계제도 변화이다. 첫째, 올해부터 대기업들 SI업체들이 공공수주에 참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동사의 수혜가 기대된다. 아직 우리의 이익추정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동사는 기술력과 자금력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고, 시장확대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주가 모멘텀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둘째, 그 동안 IFRS 개별재무제표를 사용하여 키움증권과 사람인에이치알 등 자회사 가치에 대해 배당금만 손익에 인식해왔으나 올해부터 IFRS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자회사의 손익을 모두 연결하게 된다. 특히, 이들 자회사 모두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어 동사의 유가증권 매력이 부각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자체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155	65	15	51	1,672	61.5	68	5.1	5.6	0.7	15.0
2011A	168	36	17	26	1,433	(14.3)	40	7.2	12.0	0.7	10.6
2012F	195	39	23	31	1,738	21.2	44	8.1	16.7	1.0	11.0
2013F	216	43	27	33	2,092	20.4	48	7.8	15.3	0.9	12.0
2014F	239	49	31	38	2,500	19.5	54	6.5	13.2	0.8	12.8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월 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대한항공(003490)

매수(유지)

목표가: 60,000원(하향)

종가(1/9): 47,300원

4Q12 Preview: 일본노선 부진으로 이익 감소

■ 4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 하회한 듯

2012년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 컨센서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2조원, 959억원인데, 우리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30,377억원, 34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표 1). 실적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독도영유권 이슈 부각에 엔저 현상으로 일본인 입국자수가 크게 줄어들었고, 작년 11월부터 중국 출발 환승수요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수’의견을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67,000원에서 60,000원으로 10.4% 낮춘다. 13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6,450억원에서 6,178억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목표주가는 과거 3년 평균 EV/EBITDA 8.6배를 적용해 구한 65,326원과 향후 3년 평균 추정 ROE(13.9)%를 시장 기대수익률(시장평균 PER의 역수, 10.6%)로 나눈 값 1.3배를 목표 PBR로 적용해 구한 55,517원을 평균한 것이다(표 2).

■ 단기간에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화물부문은 여전히 부진하지만 국제선 여객수요는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원화 강세 현상과 강추위로 겨울 해외여행이 늘어나고 있어 동남아와 미주노선 탑승률이 85%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호하다. 하지만 일본노선과 중국 출발 환승수요가 부진한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될 것 같아 단기간에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입국자수는 작년 9월부터 전년동월대비 감소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자료인 11월에는 일본인 입국자수가 전년동월대비 24.8%나 줄어들었다[그림 1]. 엔저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항공을 이용한 12월 일본인 입국자수는 전년동기대비 약 40%나 감소했다고 한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늘어나고 있지만, 한↔일 노선에서 일본인의 비중이 더 높아 전체 일본노선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 중기 주가 전망은 밝아

작년에 주가가 부진했고, 현재 기관투자자들의 편입비중이 낮은데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등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대한항공은 영업원가의 44%가 유류비다(12년 추정 유류비 4.8조원). 환율과 유가가 조금만 내려가도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09년을 저점으로 ‘원화 환산 항공유가’는 매년 17%씩 올랐다(09년 89,441원/bbl, 12년 134,507원/bbl로 3년 동안 50.4%상승). 최근 몇 년 동안 여객수요가 좋은데도 이익이 저조했던 이유가 이 때문이다. 3년 연속으로 원화기준 항공유가가 50%나 올랐다는 점과 올해의 유가 및 환율전망 컨센서스를 감안하면 올해는 원화기준 항공유가가 4년 만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10%만 낮아져도 유류비가 4,800억원이나 절감된다[그림 2]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11,640	1,236	806	563	8,340	NM	2,361	8.3	7.2	1.8	19.4
2011A	12,269	460	(260)	(219)	(3,240)	NM	1,803	NM	9.4	1.3	(8.4)
2012F	12,682	374	470	342	4,964	NM	1,858	9.1	9.1	1.2	13.0
2013F	13,368	618	360	255	3,704	(25.4)	2,111	12.9	8.1	1.1	8.7
2014F	14,498	784	549	400	5,805	56.7	2,276	8.2	7.4	1.0	12.3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월 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모두투어(080160)

매수(유지)

목표가: 40,300원(유지)

종가(1/8): 32,000원

4Q12 Preview: 선방한 아웃바운드, 위축된 인바운드

■ 아웃바운드: 기저 효과 작용했으나 수익성 감소

4분기 매출액은 330억원(+31.7%, YoY), 영업이익은 39억원(흑전, YoY)로 예상된다. 2011년 10월 발생한 태국 홍수효과 기저효과로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전체 매출액의 30%를 차지하는 인센티브 단체 여행 할인폭 확대로 매출 전환율이 낮아지면서 수익성은 다소 저하됐다. 연말 성과급과 연봉 협상으로 인한 임금 인상분 소급 지급으로 10.5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영향도 반영됐다.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2012년 매출액은 1,332억원(+10%, YoY), 영업이익 205억원(+28%, YoY)으로 마감될 전망이다.

■ 2013년 모두투어의 공격적인 확장 전략 주목

내실추구로 수익성을 다지겠다는 경쟁사 전략에 대비되는 모두투어의 전략은 '적극적인 채널확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영업망인 1) 전문판매점 증가, 신규 채널인 2) 제휴채널 확대를 의미한다. 모두투어는 현재 800여개 인 전문판매점 수를 연간 50개 이상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최근 롯데계열사인 롯데JTB와의 제휴를 통해 205개의 대리점과 연계하여 판매망을 확대했다. 모두투어와 롯데JTB와 모두 서로의 채널을 활용할 것이라는 전략이지만 브랜드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모두투어에게 보다 유리한 제휴로서 영업망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더불어 카드회사와의 연계를 통해 판매망을 다각화했다. 카드사의 경우 전문판매점에 지불하는 수수료를보다 2%p 저렴하게 책정되어 비중이 늘어날수록 수익성에 도움이 된다는 이점이 있다.

■ 현재 추가 상승여력 26%, 1분기 실적 개선 확인 후 목표 PER 상향조정 가능

모두투어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40,3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를 제시한 이후 지난 한 달간 모두투어의 주가상승률은 13%(vs 하나투어 7%)로서 하나투어보다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다. 40,300원은 2013년 예상 EPS에 하나투어 목표PER 대비 10%를 할인한 18.9배를 적용했다. 올해 적극적인 성장전략의 결과로서 브랜드와 플랫폼 부분에서 경쟁사대비 빠른 M/S 성장이 1분기 실적으로 확인될 경우, 목표 PER을 20배(하나투어대비 할인율 5%)로 산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1월 8일 기준 2월 예약률 마저 플러스로 반전되어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117	17	20	16	1,991	1,218.5	18	11.9	12.1	2.7	27.6
2011A	121	16	18	14	1,686	(15.3)	17	9.5	7.6	1.7	19.7
2012F	133	21	22	18	1,494	(11.4)	22	20.1	13.6	3.6	21.6
2013F	166	30	31	26	2,131	42.6	32	15.0	9.4	3.3	24.6
2014F	191	38	39	32	2,632	23.5	40	12.2	7.1	2.7	25.4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월 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한국전력(015760)

매수(유지)

목표가: 38,000원(상향)

종가(1/9): 31,650원

14일부터 전기요금 4.0% 인상

■ 전기요금, 최근 1년 5개월 동안 네 번에 걸쳐 총 19.6% 인상

전기요금이 14일부터 4.0% 인상된다. 최근 1년 5개월 동안 네 번에 걸쳐 총 19.6% 오르는 것이다. 요금이 4% 오르면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9조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우리는 7월에 4.5%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었는데, 예상보다 빨리 인상된 부분을 반영해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9,500억원 상향조정했다. 이익 추정치가 상향조정된 것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33,000원에서 38,000원으로 15.2% 올린다. 한전은 올해 원/달러 환율이나 유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6년 만에 순이익이 흑자전환이 확실시 된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정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기요금 인상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증시 격언이 잘 들어맞는 이벤트이기 때문이다.

■ 예상보다 빨리 오른 배경은?

시장은 이번 요금 인상을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전은 동절기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 요금인상이 꼭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불과 5개월 전에 요금이 4.9% 인상된 바 있는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또 요금을 올릴 수 있겠냐는 시각도 많았다. 정부가 어려운 여건 하에 한전의 요금인상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요금 인상으로 전력수요를 억제하면서 정권교체 이전에 요금을 올려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덜어 주고, 한전의 만성 적자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평균 전기요금 인상률은 4.0%이며, 주택용과 산업용이 각각 2.0%, 4.4%, 일반용과 교육용이 각각 4.6%, 3.5%, 농사용은 3.0% 인상된다.

■ 호재 소멸로 단기 주가는 조정 가능성 높아

한전 주가에 가장 큰 호재인 요금인상 재료가 소멸된 만큼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정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차례의 요금인상으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1월에 요금을 인상한 이유 중 하나가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중 추가 요금인상 가능성은 낮다. 올해 한전의 EBITDA는 11.5조원으로 예상된다. 2.7조원의 연간 이자비용과 16조원의 설비투자비를 감안하면 아직도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구조다. 조만간 발전설비를 확충하는 내용이 담긴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면 한전의 설비투자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다. 한전이 앞으로도 계속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39,507	2,260	370	(120)	(193)	NM	8,957	NM	6.4	0.3	(0.2)
2011A	43,532	(685)	(2,473)	(3,370)	(5,411)	NM	6,192	NM	9.9	0.3	(6.1)
2012F	50,872	(701)	(2,585)	(2,041)	(3,275)	NM	6,595	NM	10.5	0.4	(3.9)
2013F	55,748	3,712	1,385	964	1,502	NM	11,504	21.1	6.7	0.4	1.9
2014F	59,858	4,994	2,366	1,704	2,735	82.1	13,150	11.6	6.1	0.4	3.2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월 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비아트론(141000)

매수(유지)

목표가: 21,000원(상향)

종가(1/9): 15,300원

상반기는 해외수주, 하반기는 국내 대형OLED수주

■ 대형OLED장비 수주효과를 반영해 목표주가 21,000원으로 17% 상향 조정

목표주가를 21,000원(2013년 추정EPS에 목표 P/E 10배 적용)으로 기존 대비 17% 상향 조정한다. 1) 삼성디스플레이향 OLED장비수주를 실적추정에 추가로 반영했고, 2) 패널업체들의 대형OLED 설비투자가 예상보다 조기화될 것으로 전망해 2013년 EPS추정치를 13% 상향 조정했다. EPS추정기간도 12개월 Fwd에서 2013년으로 변경했다. 상반기에는 해외업체향 장비 수주, 하반기는 국내 패널업체들로부터의 OLED장비수주로 지속적인 실적개선을 전망한다. 특히, 국내 패널업체들의 하반기 OLED설비투자로 상반기 실적부진이 예상되는 주요OLED장비업체들과 달리, 상반기에도 안정적인 수주모멘텀 확보가 가능한 점을 주목한다. OLED라인 이외에도 LTPS 및 Oxide TFT기술 기반의 고해상도 LCD라인으로 장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가는 2013년 추정EPS 기준 7배로 성장성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

■ 삼성디스플레이향 OLED장비수주 지속된다

지난 12월 삼성디스플레이 A2E(extension)라인으로의 장비수주를 받음으로써 향후 증설라인으로 장비 공급의 가시성도 높아졌다. 하반기 설비투자가 진행될 5.5세대 추가증설라인이 A2E라인과 동일한 기술방식이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라인으로 장비 공급이 예상된다. 8세대 양산라인에서도 동사의 인라인타입 장비 수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 국내 패널업체들의 대형OLED 설비투자 하반기부터 시작될 전망

대형OLED 양산라인 설비투자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CES 2013에서 국내 업체들이 55인치 OLED TV를 작년에 이어 공개했고, 소니와 파나소닉 등 일본업체들도 OLED TV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또한, LG전자의 OLED TV가 시장에 출시되면서 패널업체들간 대형OLED사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는 국내 패널업체들이 상반기 중에 투자계획을 확정, 하반기에 설비투자를 시행할 것으로 판단한다. 경쟁산업 내 시장 조기진입으로 시장선점을 하기 위한 선택이다. 이에 따라, 동사의 대형OLED장비 수주가정도 기존 4분기에서 3분기로 변경한다. 대형OLED장비 조기 수주로 연간 매출액 증가효과가 예상된다.

■ 2013년 매출액 전년대비 88% 증가

동사의 2013년 매출액은 1,093억원으로 전년 대비 88% 상승할 전망이다. LG디스플레이의 Oxide TFT라인향 수주가정을 실적에서 제외했지만, 하반기 삼성디스플레이향 OLED장비수주와 대형OLED장비수주 조기인식에 따른 실적개선효과가 더 크다. 영업이익률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인라인타입 매출비중이 71%(vs. 2012년 37%)로 상승해 전년 대비 전년대비 2%p 증가한 22.8%로 전망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22	7	7	8	2,463	526.6	8	NM	NM	NM	104.6
2011A	47	10	11	10	1,394	(43.4)	11	NM	NM	NM	58.7
2012F	58	12	12	10	1,014	(27.2)	13	12.3	8.4	2.4	27.0
2013F	109	25	25	21	2,076	104.7	27	7.4	4.9	2.1	33.5
2014F	117	26	26	22	2,179	5.0	31	7.0	4.1	1.6	26.2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월 1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현대차(005380)

매수(유지)

목표가: 320,000원(유지)

종가(1/9): 207,500원

4Q12 Preview: 튼튼한 수익성 전망

■ '저가매수' 기회

투자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20,000원(12개월 forward PER 10배, 과거 평균치 10% 할증)을 유지한다. 최근 하락한 주가는 견고한 4분기 실적 예상으로 '저가매수'기회를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4분기 영업이익(24일 발표 예정)은 11월 2일 미국에서 발생한 연비 이슈 비용 약 2,200억원 때문에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연비 관련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률은 10.5%로 전년동기 10.4%보다 높게 추정된다. 향후에도 지속되는 해외공장 판매 강세와 ASP 상승 그리고 최저 인센티브로 두자리수 영업이익률은 유지할 전망이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13년 세전이익률은 1) 중국 3공장 효과, 2) 알라바마공장 3교대 도입, 3) 브라질공장 효과, 4) 최저 수준의 글로벌 재고 등 때문에 14.5%로 12년 예상치(14.1%)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주가는 12MF PER 6.2배 수준인데 EPS 증가율은 10.8%로 추정된다. 내수시장에 12년 5월 출시된 신형 Santa Fe(DM)는 12월 중국에 출시됐고 13년 1월 미국에는 long-wheelbase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다.

■ 튼튼한 4분기 실적 예상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1조 9천억원(+6.7% YoY), 2조 801억원(-2.2% YoY)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10.4%에서 9.5%로 하락할 전망이다. 연비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 10.5%로 추정된다. 4분기 국내공장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2.4% 감소한 522,947대(내수판매 186,222(+8.2% YoY), 수출 336,725대(-7.4% YoY))를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해외공장 판매는 21.6% 증가한 700,558대를 기록하며 총 1,223,505대를(+10.1% YoY) 판매했다. 4분기 해외공장 판매 강세는 중국공장 판매(259,847대, +38.2% YoY)가 견인했다. 4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1,076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9% 하락했다. 4분기 말 기준 글로벌 재고는 11년 말과 같은 1.7개월분이다. 한편 브라질공장 판매는 9월 1,215대에서 10월 7,116대, 11월 8,804개, 12월 10,032대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중국시장이 최대 투자 포인트

11월 현대차 중국공장 판매는 90,888대(+39.7% YoY)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2년 현대는 중국에서 855,995대(+15.7% YoY)를 판매하며 4년 연속 미국판매(703,007대, +8.9% YoY)를 능가했다. 09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으로 부상했다. 더욱 긍정적인 부분은 중국 승용차시장은 12년 전년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13년에는 9.4% 증가해 1,657만대 규모일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다. 또한 중국에서의 반일 감정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되어 현대차가 최대 수혜를 볼 전망이다. 따라서 13년 현대차는 중국에서 950,154대를 판매해 미국 판매(790,883대)와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66,985	5,918.5	7,491.6	5,567.1	19,557	88.0	8,073.3	10.6	9.3	1.8	21.9
2011A	77,798	8,075.5	10,447.1	7,655.9	26,894	37.5	10,410.2	7.7	7.5	1.5	22.1
2012F	83,649	8,920.9	11,771.6	8,628.7	30,226	12.4	10,888.3	6.9	6.9	1.3	21.0
2013F	89,657	9,804.3	13,041.1	9,559.3	33,485	10.8	11,847.4	6.2	6.2	1.1	19.7
2014F	97,751	10,986.9	14,632.0	10,725.4	37,570	12.2	13,114.7	5.5	5.2	0.9	18.5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월 1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이수정 (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1/03(목)	01/04(금)	01/07(월)	01/08(화)	01/09(수)	01/10(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19.41	2,011.94	2,011.25	1,997.94	1,991.81	2,006.80
	등락폭	-11.69	-7.47	-0.69	-13.31	-6.13	14.99
	등락종목						
	상승(상한)	443(6)	419(10)	393(10)	370(12)	379(9)	473(12)
	하락(하한)	376(1)	377(0)	398(1)	430(1)	429(1)	308(3)
	ADR	102.56	105.25	106.00	106.25	106.15	108.17
	이격도						
	10 일	101.20	100.68	100.55	99.89	99.53	100.16
	20 일	102.04	101.48	101.25	100.45	100.04	100.67
	투자심리	70	70	60	50	50	50
코스닥	거래량 (백만 주)	485	373	533	490	598	495
	거래대금 (십억 원)	5,988	4,677	3,942	3,904	3,944	4,471
	코스닥지수	499.07	504.84	508.72	509.01	511.94	514.48
	등락폭	-2.54	5.77	3.88	0.29	2.93	2.54
	등락종목						
	상승(상한)	429(14)	566(12)	529(10)	436(12)	483(7)	508(5)
	하락(하한)	500(1)	326(2)	390(0)	481(1)	421(0)	408(1)
	ADR	96.95	100.50	101.82	105.66	109.29	109.87
	이격도						
	10 일	102.24	103.01	103.26	102.70	102.59	102.47
	20 일	101.90	103.02	103.74	103.67	104.02	104.26
	투자심리	40	50	60	70	80	80
	거래량 (백만 주)	384	395	412	426	494	427
	거래대금 (십억 원)	1,728	1,862	1,804	1,737	1,851	1,801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250.5	1,199.2	1,006.6	223.6	210.9	287.9	37.0	32.9	185.8	44.4
	매도	2,206.6	1,211.7	1,039.0	375.9	133.4	263.3	55.6	26.4	158.4	43.4
	순매수	43.9	-12.5	-32.5	-152.3	77.5	24.6	-18.6	6.5	27.3	1.1
	01 월 누계	68.5	347.6	-391.9	-144.6	223.9	-374.5	-115.1	33.0	22.9	-24.1
	13 년 누계	68.5	347.6	-391.9	-144.6	223.9	-374.5	-115.1	33.0	22.9	-24.1
코스닥	매수	1,615.4	76.0	113.9	12.9	18.2	40.5	7.6	4.3	25.2	16.0
	매도	1,635.0	70.8	99.6	16.4	20.8	30.3	7.9	4.2	17.4	15.8
	순매수	-19.7	5.2	14.3	-3.5	-2.6	10.2	-0.3	0.1	7.8	0.2
	01 월 누계	-104.3	16.7	97.3	15.5	18.2	36.8	5.5	-5.9	21.6	-9.8
	13 년 누계	-104.3	16.7	97.3	15.5	18.2	36.8	5.5	-5.9	21.6	-9.8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20,385	전기가스업	-6,914	전기가스업	16,296	금융업	-8,980
운수창고	11,313	건설업	-6,317	전기,전자	13,817	서비스업	-8,247
운수장비	7,403	금융업	-6,231	운수장비	11,767	유통업	-7,685
호남석유	13,557	한국전력	-8,303	삼성전자	14,572	NHN	-8,036
KStar 국고채	7,755	하나금융지주	-5,865	한국전력	9,307	신한지주	-5,488
현대차	5,112	NHN	-3,966	현대차	7,772	현대그린푸드	-5,377
현대글로비스	4,267	삼성전자	-3,589	한국가스공사	6,923	현대위아	-4,369
POSCO	4,161	S-Oil	-3,499	삼성생명	4,722	우리금융	-3,815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2,507	통신업	-476	전기,전자	41,147	건설업	-5,961
전기,전자	2,471	운수창고	-388	운수장비	13,999	서비스업	-4,931
서비스업	985	금융업	-320	전기가스업	9,558	통신업	-4,282
현대모비스	2,012	만도	-1,036	삼성전자	31,299	SK이노베이션	-6,146
삼성전기	1,992	OCI	-923	한국전력	9,891	현대백화점	-3,193
현대차	1,494	대한항공	-704	SK하이닉스	8,389	GS	-3,125
KODEX 레버리지	1,384	LG전자	-661	현대차	5,826	삼성정밀화학	-3,028
메리츠화재	995	삼성물산	-649	신한지주	4,828	KT	-2,992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24,609	서비스업	-37,369	전기가스업	52,409	운수장비	-58,976
운수창고	11,189	금융업	-27,609	전기,전자	20,974	서비스업	-33,839
전기가스업	10,592	건설업	-19,198	금융업	19,952	보험	-17,385
호남석유	22,480	NHN	-15,690	한국전력	54,250	현대모비스	-32,523
SK하이닉스	15,105	하나금융지주	-13,016	삼성전자	52,822	엔씨소프트	-22,685
한국가스공사	12,916	LG전자	-12,186	OCI	18,084	LG디스플레이	-20,815
현대모비스	10,418	SK이노베이션	-12,183	하나금융지주	14,891	LG전자	-13,260
락앤락	8,278	현대위아	-10,279	KT&G	10,658	아모레퍼시픽	-12,561
현대차	8,247	현대중공업	-9,626	SK하이닉스	9,604	호남석유	-10,301
대우조선해양	7,995	현대백화점	-7,504	현대중공업	8,985	삼성화재	-9,645
한화케미칼	7,472	기아차	-7,342	현대건설	8,624	현대차	-8,837
한진해운	6,931	KODEX 인버스	-7,192	롯데쇼핑	7,473	KODEX 인버스	-8,383
KODEX 레버리지	6,875	현대건설	-7,174	현대백화점	7,152	대우조선해양	-7,956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4,246	소프트웨어	-2,838
오락,문화	3,588	방송서비스	-2,784
기계,장비	2,125	인터넷	-802
파라다이스	3,638	골프존	-3,134
이녹스	2,532	CJ오쇼핑	-2,145
덕산하이메탈	2,382	멜파스	-1,164
에스에프에이	1,370	다음	-824
와이솔	1,329	인터플렉스	-777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3,716	IT부품	-2,809
금속	2,089	출판,매체복제	-2,439
제약	1,895	의료,정밀기기	-1,151
서울반도체	2,198	에스엠	-2,439
파라다이스	1,629	플렉스컴	-1,303
CJ E&M	1,576	바텍	-1,056
씨젠	1,289	GS홈쇼핑	-873
태광	747	멜파스	-872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사업지원	507	IT부품	-571
반도체	425	제약	-534
도매	200	음식료,담배	-244
하나투어	507	아이컴포넌트	-924
이녹스	395	코오롱생명과학	-462
CJ오쇼핑	298	GS홈쇼핑	-382
서울반도체	222	매일유업	-242
씨티씨바이오	173	멜파스	-179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기계,장비	2,090	오락,문화	-2,451
디지털컨텐츠	816	IT부품	-2,243
소프트웨어	712	금속	-1,385
에스에프에이	1,478	파라다이스	-2,453
게임빌	1,122	멜파스	-2,149
SBS콘텐츠허브	1,031	포스코엠텍	-1,921
실리콘웍스	617	위메이드	-877
하나투어	563	CJ오쇼핑	-829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6,953	IT부품	-6,572
오락,문화	5,066	출판,매체복제	-3,019
기계,장비	4,929	방송서비스	-2,836
파라다이스	4,928	멜파스	-7,428
이녹스	4,395	골프존	-3,648
덕산하이메탈	3,505	에스엠	-2,979
에스에프에이	3,096	GS홈쇼핑	-1,892
CJ E&M	2,355	인터플렉스	-1,519
성광벤드	2,303	플렉스컴	-1,477
하나투어	2,186	컴투스	-1,298
와이솔	1,879	유평론텍	-1,162
SBS콘텐츠허브	1,831	포스코엠텍	-1,137
휴비츠	1,744	바텍	-1,034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방송서비스	5,944	IT부품	-4,441
의료,정밀기기	2,606	금속	-3,494
인터넷	2,314	사업지원	-2,319
CJ오쇼핑	3,593	성광벤드	-1,804
다음	2,535	에스맥	-1,579
GS홈쇼핑	2,361	하나투어	-1,577
오스템임플란트	1,933	하이록코리아	-1,539
골프존	1,800	컴투스	-1,510
셀트리온	1,383	에이블씨엔씨	-1,493
유진테크	1,340	실리콘웍스	-1,416
게임빌	1,267	멜파스	-1,144
위메이드	1,108	메디톡스	-1,002
코오롱생명과학	1,082	에스엠	-984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미래에셋증권	21 일	현대건설	28 일
TIGER	15 일	LG화학	27 일
원유선물(H)	14 일	대한생명	20 일
LG생명과학	10 일	대우건설	17 일
대상	10 일	S&T대우	17 일
KODEX 은행	7 일	한국철강	12 일
한화케미칼	7 일	신도리코	11 일
락앤락	6 일	삼성SDI	8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트레이드증권	16 일	메가스터디	23 일
동서	10 일	다음	12 일
에스에프에이	10 일	엘앤에프	11 일
비에이치아이	10 일	디지털시스템	7 일
포스코컴텍	8 일	휴맥스	6 일
하나투어	6 일	큐렉소	5 일
서울반도체	6 일	CJ오쇼핑	4 일
이오테크닉스	5 일	매일유업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현대모비스	77,633	하나금융지주	95,472
현대차	61,021	OCI	65,595
KODEX 인버스	30,219	한국전력	62,619
삼성화재	28,797	현대건설	57,401
삼성생명	21,309	현대중공업	48,730
락앤락	19,751	삼성SDI	42,375
대한항공	19,584	KODEX 200	40,346
한미약품	19,272	LG화학	36,366

KOSDAQ			
기	관	외	국 인
파라다이스	16,367	다음	45,471
하나투어	16,050	CJ오쇼핑	6,172
에스엠	13,233	셀트리온	3,571
CJ E&M	12,868	동서	3,483
덕산하이메탈	7,997	유진테크	3,089
에스에프에이	6,682	파트론	3,059
코오롱생명과학	4,298	골프존	3,032
에이블씨엔씨	2,536	코미팜	2,901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가스업	10,592	52,409	63,001
운수창고	11,189	473	11,662
철강및금속	6,284	1,525	7,809
SK하이닉스	15,105	9,604	24,709
OCI	6,264	18,084	24,347
락앤락	8,278	2,433	10,711
POSCO	4,724	3,572	8,297
금호석유	5,460	715	6,175
GKL	2,549	1,482	4,032
한솔제지	3,934	16	3,949
LG생명과학	626	1,921	2,547
삼성전자우	1,778	248	2,025
현대차2우B	367	1,285	1,651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제약	2,369	607	2,977
전문기술	1,889	829	2,718
통신장비	130	497	627
파라다이스	4,928	1,037	5,965
덕산하이메탈	3,505	405	3,910
CJ E&M	2,355	470	2,824
휴비츠	1,744	901	2,645
오스템임플란트	529	1,933	2,462
한글과컴퓨터	1,142	101	1,243
씨젠	866	312	1,177
OCI머티리얼즈	333	562	895
KG이니시스	545	37	582
STS반도체	167	414	582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STX	10 일	기아차	9 일	씨엔케이인터	19 일	성광벤드	15 일
TIGER 경기방어	10 일	KODEX 철강	9 일	우주일렉트로	8 일	동진세미켐	10 일
삼성SDI	9 일	TIGER 레버리지	8 일	동국산업	7 일	SBS콘텐츠헤브	10 일
삼성전기	9 일	대우인터네셔널	7 일	심텍	7 일	실리콘웍스	8 일
동부제철	9 일	삼성화재	6 일	인터플렉스	7 일	AP시스템	6 일
세아베스틸	8 일	아세아시멘트	6 일	셀트리온	7 일	하이록코리아	5 일
카프로	8 일	현대모비스	6 일	메가스터디	7 일	평화정공	5 일
한섬	8 일	엔씨소프트	6 일	디지털시스템	7 일	서울반도체	5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LG화학	-75,028	삼성전자	-195,720	다음	-24,461	성광벤드	-13,085
삼성전자	-69,012	기아차	-117,123	멜파스	-14,373	하나투어	-8,847
하나금융지주	-65,060	LG디스플레이	-69,287	인터플렉스	-7,270	서울반도체	-7,740
KODEX 200	-54,585	엔씨소프트	-61,376	골프존	-6,183	에이블씨엔씨	-3,064
현대중공업	-50,206	현대차	-58,678	성광벤드	-3,782	덕산하이메탈	-2,820
KODEX 레버리지	-48,463	삼성화재	-27,921	아트라스BX	-2,964	하이록코리아	-2,702
S-Oil	-42,256	삼성중공업	-19,491	성우하이텍	-2,635	실리콘웍스	-2,579
TIGER 200	-41,936	KODEX 레버리지	-14,543	심텍	-2,599	파라다이스	-2,485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서비스업	-37,369	-33,839	-71,208	IT부품	-6,572	-4,441	-11,012
증권	-363	-6,626	-6,989	출판,매체복제	-3,019	-1,050	-4,069
-	-	-	-	디지털컨텐츠	-830	-439	-1,270
엔씨소프트	-5,615	-22,685	-28,300	멜파스	-7,428	-1,144	-8,572
LG전자	-12,186	-13,260	-25,446	에스엠	-2,979	-984	-3,963
SK이노베이션	-12,183	-5,321	-17,504	컴투스	-1,298	-1,510	-2,807
KODEX 인버스	-7,192	-8,383	-15,575	인터플렉스	-1,519	-588	-2,107
기아차	-7,342	-5,684	-13,026	플렉스컴	-1,477	-440	-1,917
현대위아	-10,279	-169	-10,448	모두투어	-777	-730	-1,507
S-Oil	-5,653	-4,596	-10,249	옵트론텍	-1,162	-27	-1,189
삼성테크윈	-1,066	-7,565	-8,631	바텍	-1,034	-85	-1,119
삼성정밀화학	-5,699	-2,503	-8,203	뷰웍스	-773	-315	-1,088
삼성전기	-2,313	-4,779	-7,092	포스코 ICT	-414	-184	-598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엔씨소프트	137	20,287	
LG전자	208	15,932	
OCI	30	5,678	
한국전력	168	5,261	
SK하이닉스	170	4,480	
삼성전자	3	3,915	
POSCO	8	2,733	
NHN	11	2,55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서울반도체	155	3,941	
옵트론텍	67	931	
에스에프에이	18	869	
크로바하이텍	112	753	
KG이니시스	51	668	
한국사이버결제	46	589	
에이블씨엔씨	7	578	
네오위즈게임즈	22	555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735	5,602,683	
POSCO	9,329	3,367,814	
LG전자	36,279	2,753,605	
OCI	9,110	1,689,932	
NHN	3,699	863,806	
현대차	3,772	782,684	
현대중공업	2,758	653,690	
SK하이닉스	22,823	594,54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6,550	683,658	
서울반도체	5,836	148,522	
덕산하이메탈	3,083	72,756	
에스엠	1,572	71,744	
멜파스	1,838	47,414	
다음	426	43,713	
게임빌	385	40,882	
파라다이스	2,102	37,318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금융업	11,277	종이, 목재	-224
화학	10,273	운수창고	147
운수장비	8,790	의료정밀	268
한화케미칼	4,381	KODEX 200	-1,008
KT	4,256	KEC	-944
우리금융	3,597	대한항공	-873
삼성물산	3,188	대영포장	-340
신한지주	3,072	남선알미늄	-327
KB금융	2,531	현대상선	-327
삼성중공업	2,512	KODEX 운송	-220
LG전자	2,483	SK텔레콤	-187
삼성증권	2,162	한국가스공사	-156
SK하이닉스	1,923	디아이	-15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반도체	2,332	금속	-87
IT부품	2,305	컴퓨터서비스	-70
디지털컨텐츠	1,094	통신서비스	-62
덕산하이메탈	827	포스코애플	-248
서울반도체	723	서한	-134
안국약품	668	포스코 ICT	-124
멜파스	554	MDS테크	-100
서희건설	532	셀트리온	-90
한국토지신탁	511	성광밴드	-82
파라다이스	474	인프라웨어	-69
네오퍼플	464	SK브로드밴드	-67
위메이드	369	원익IPS	-62
옵트론텍	343	파워로직스	-60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1/04(금)	01/07(월)	01/08(화)	01/09(수)	01/10(목)
외국인	347.6	347.6	62.5	50.4	-34.7	45.0	8.7	-12.5
기관계	-391.9	-391.9	-398.3	-137.6	14.3	-112.8	-132.4	-32.5
(투신)	-374.5	-374.5	-277.6	-130.2	-46.3	-70.4	-50.0	24.6
(연기금)	52.3	52.3	-39.5	-42.7	-4.5	-23.9	-2.3	33.9
(은행)	33.0	33.0	6.8	-3.8	-11.8	10.0	5.9	6.5
(보험)	223.9	223.9	77.8	-13.5	36.4	-28.9	3.6	77.5
개인	68.5	68.5	365.5	95.0	25.6	78.4	131.1	43.9
기타	-24.1	-24.1	-29.7	-7.8	-5.1	-10.5	-7.4	1.1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01/03(목)	01/04(금)	01/07(월)	01/08(화)	01/09(수)
KOSPI	1,682.77	2,051.00	1,825.74	2,019.41	2,011.94	2,011.25	1,997.94	1,991.81
고객예탁금	12072.0	14068.5	17680.2	18187.5	18031.7	17673.1	17424.8	17735.4
(증감액)	2735.7	1996.5	3611.7	135.3	-155.8	-358.6	-248.3	310.6
(회전율)	52.6	51.5	34.2	43.1	37.1	33.0	33.0	33.3
실질예탁금 증감	-292.5	-3502.6	3775.5	-16.2	-414.4	-415.6	-278.6	326.0
신용잔고	4359.5	5938.3	4476.3	3896.0	3913.1	3935.9	3970.5	3981.4
미수금	240.2	192.3	187.7	123.2	140.8	166.8	184.5	170.6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01/03(목)	01/04(금)	01/07(월)	01/08(화)	01/09(수)
전체 주식형	94,191	-414	-414	-244	-196	-38	113	-4
(ex. ETF)		-745	-745	-256	-138	-104	-20	-69
국내 주식형	68,236	-281	-281	-230	-173	-13	137	21
(ex. ETF)		-616	-616	-241	-114	-83	4	-44
해외 주식형	25,954	-133	-133	-15	-24	-25	-24	-25
(ex. ETF)		-130	-130	-15	-24	-21	-24	-25
주식 혼합형	9,919	-87	-87	-40	-8	-18	-6	-6
채권 혼합형	19,110	-89	-89	81	-14	-2	-1	-3
채권형	47,295	89	89	217	159	7	-57	88
MMF	71,656	8,527	8,527	3,027	3,194	1,222	709	-12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1/04(금)	01/07(월)	01/08(화)	01/09(수)	01/10(목)
한 국	285	285	690	53	-33	-	8	-12
대 만	-393	-393	673	-209	-198	-235	-12	-
인 도	1,241	1,241	1,328	-	181	162	-	-
인도네시아	261	261	757	51	85	34	13	-
태국	326	326	574	92	80	65	53	-
남아공	337	337	283	184	16	-14	-	-
필리핀	122	122	97	31	42	14	11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1년	01/03(목)	01/04(금)	01/07(월)	01/08(화)	01/09(수)	01/10(목)
회사채 (AA-)	4.21	3.25	2.88	3.25	3.23	3.23	3.19
회사채 (BBB-)	10.01	8.75	8.73	8.74	8.73	8.73	8.69
국고채 (3년)	3.34	2.77	2.74	2.76	2.74	2.75	2.70
국고채 (5년)	3.46	2.91	2.89	2.89	2.87	2.87	2.82
국고채 (10년)	3.79	3.13	3.13	3.10	3.05	3.05	3.02
미 국채 (10년)	1.88	1.91	1.90	1.90	1.87	1.86	-
일 국채 (10년)	0.99	0.79	0.83	0.83	0.84	0.83	-
원/달러	1,151.80	1,061.50	1,063.60	1,063.70	1,063.00	1,061.70	1,060.40
원/엔	1,492.00	1,218.00	1,206.00	1,211.00	1,217.00	1,214.00	1,204.00
엔/달러	77.24	87.16	88.23	87.84	87.37	87.47	88.09
달러/유로	1.29	1.31	1.30	1.30	1.31	1.30	1.30
DDR3 1Gb (1333MHz)	0.64	0.68	0.68	0.68	0.68	0.68	-
NAND Flash 16Gb (MLC)	2.81	1.89	1.90	1.90	1.90	1.90	-
CRB 지수	305.30	295.65	294.13	295.23	294.61	293.97	-
LME 지수	3,306.0	3,539.6	3,488.9	3,476.7	3,485.5	3,496.3	-
BDI	1,738	700	706	712	734	743	-
유가 (WTI, 달러/배럴)	98.83	92.92	93.09	93.19	93.15	93.10	-
금 (달러/온스)	1,566.80	1,679.70	1,648.90	1,645.80	1,662.20	1,655.5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최근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KOSPI200	1303월물	이론	마감	평균			증감
1월 4일	266.14	268.10	1.45	1.96	2.72	186,039	115,712	71
1월 7일	265.97	268.20	1.39	2.23	2.35	240,444	135,247	19,535
1월 8일	263.95	265.40	1.35	1.45	2.26	229,235	116,273	-18,974
1월 9일	262.90	264.35	1.32	1.45	1.85	206,833	115,179	-1,094
1월 10일	264.95	266.20	1.33	1.25	1.69	251,395	111,651	-3,528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1월 4일	-2,474	1,283	1,266	1,246	-221	25	-199	0
1월 7일	9,094	-2,511	-6,094	-4,477	-1,137	-143	-94	0
1월 8일	-14,650	6,827	7,551	5,477	1,252	223	130	-4
1월 9일	-2,358	2,173	388	322	59	-55	77	-3
1월 10일	483	102	-916	-1,806	1,197	-55	-206	-4
누적포지션	-7,612	11,893	-4,413	23	-4,628	446	-359	106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1월 4일	675	1,140	465	662	1,028	366	13	113	100	5,680	11,942
1월 7일	650	767	118	638	740	102	11	27	16	5,175	11,520
1월 8일	676	780	104	610	753	143	66	27	-39	5,123	11,333
1월 9일	750	656	-94	696	649	-47	54	6	-48	4,779	10,904
1월 10일	770	643	-126	641	634	-7	129	9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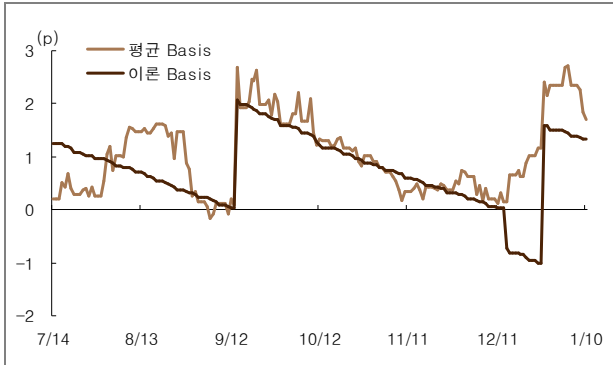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변동성
41.22	-144	589	0.01	275.00	10.00	143	-39	5.00
32.21	2,988	5,839	0.01	272.50	7.60	558	-118	42.22
22.79	2,066	132,712	0.01	270.00	5.05	6,015	-729	22.93
14.30	-5,175	538,535	0.02	267.50	2.57	92,535	469	15.48
7.91	-5,197	1,216,758	0.29	265.00	0.32	666,220	3,145	7.66
16.12	1,390	697,264	2.50	262.50	0.02	1,109,597	6,602	14.07
28.44	1,433	95,742	5.00	260.00	0.01	543,649	-930	22.90
5.00	132	5,346	7.45	257.50	0.01	157,831	3,991	32.82
5.00	-80	638	9.80	255.00	0.01	68,998	11,009	42.51
5.00	-30	46	12.20	252.50	0.01	661	102	52.07
73.34	-29	81	15.00	250.00	0.01	88	-130	6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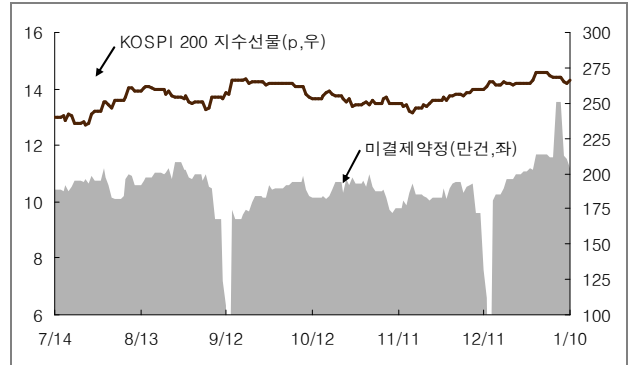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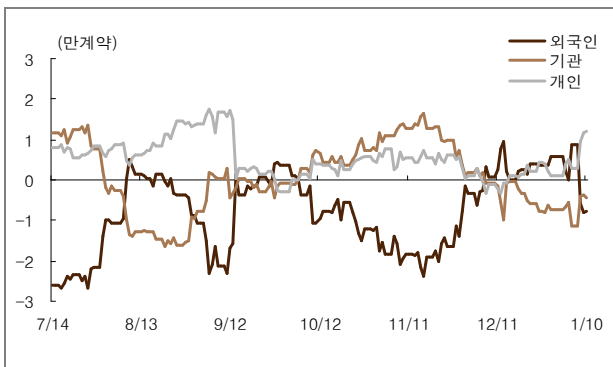
- 평균 Basis: 1.69 (전 거래일 대비 0.16 하락)
- 이론 Basis: 1.33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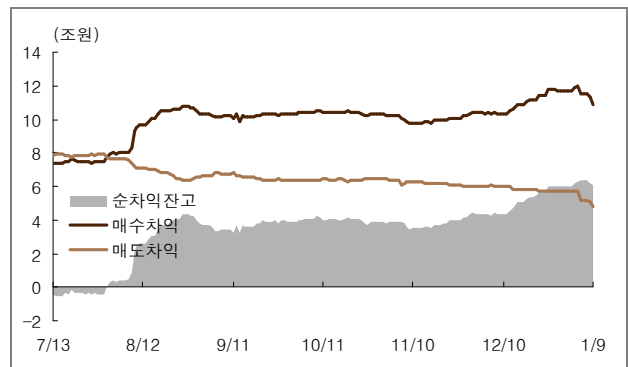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3,528 계약 감소한 111,651 계약
- 선물가격(266.20): 전 거래일 대비 1.85p 상승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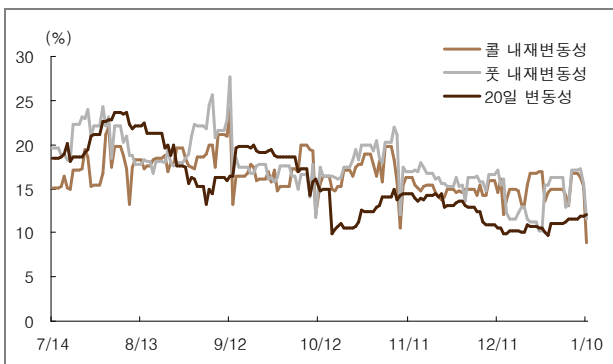
- 외국인: 483 계약 순매수
- 기관: 916 계약 순매도 / 개인: 102 계약 순매수

차익거래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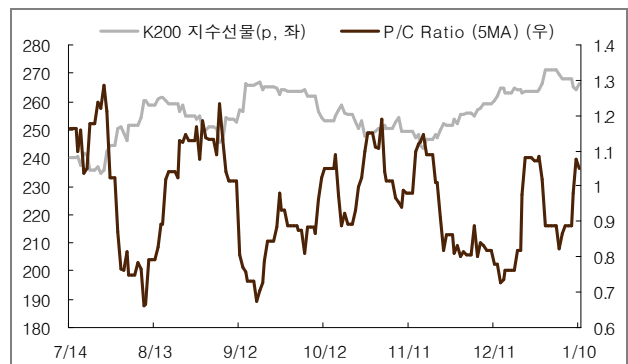
- 차익거래: 1,192 억원 순매도
- 비차익거래: 73 억원 순매도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8.9% / 풋 11.6%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2.09% 기록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1.05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2년 12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31	1	2	3	4
韓> 12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1.4%, 1.5%, 1.6%) 中> 12월 HSBC PMI 제조업 (51.5, 51.0, 50.6)	韓> 12월 수출 YoY (-5.5%, 0.8%, 3.9%) 12월 수입 YoY (-5.3%, -2.2%, 0.7%) 12월 무역수지 (\$2,026M, \$3,275M, \$4,475M) 中> 12월 PMI 제조업 (50.6, 51.0, 50.6)	韓> 12월 HSBC PMI 제조업 (50.1, n/a, 48.2) 美> 11월 건설지출 MoM (-0.3%, 0.6%, 1.4%) 12월 ISM 제조업 (50.7, 50.5, 49.5) 中> 11월 선행지수 (100.21, n/a, 100.42)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10.4%, n/a, -12.3%)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7.2만, 36.0만, 35.0만) 12월 ADP 취업자 변동 (21.5만, 14.0만, 11.8만) 12월 ISM 뉴욕 (54.3, n/a, 52.5) FOMC 의사록 공개 새 의회 개원 中> 12월 PMI 비제조업 (56.1, n/a, 55.6)	韓> 12월 외환보유액 (\$326.4B, n/a, \$326.1B) 美> 12월 총 차량 판매 (15.30M, 15.30M, 15.46M) 12월 비농업부분 고용자수 변동 (15.5만, 15.2만, 14.6만) 12월 실업률 (7.8%, 7.7%, 7.7%) 12월 ISM 비제조업 (56.1, 54.1, 54.7) 中> 12월 HSBC PMI 서비스 (51.7, n/a, 52.1)
7	8	9	10	11
유럽> 1월 섹터스 투자자기대지수 (n/a, -14.2, -16.8)	美> 12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88.0, 87.2, 87.5) 11월 소비자신용지수 (\$16.05B, \$12.75B, \$14.16B) 유럽> 11월 유로권 소매판매 YoY (-2.6%, -2.1%, -3.6%) 11월 유로권 실업률 (11.8%, 11.8%, 11.7%) 실적발표> 韓 삼성전자	韓> 12월 실업률 (3.0%, 3.0%, 3.0%)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11.7%, n/a, -10.4%) 실적발표> 美 알코아	韓> 12월 수출물가지수 YoY (-6.2%, n/a, -5.5%) 12월 수입물가지수 YoY (-8.8%, n/a, -7.6%) 11월 통화공급 M2 YoY (0.2%, n/a, 0.2%)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6.5만, 37.2만) 유럽> ECB 금리 공시 (n/a, 0.75%, 0.75%) BOE 금리 공시 (n/a, 0.50%, 0.50%) 中> 12월 수출 YoY (14.1%, 5.0%, 2.9%) 12월 수입 YoY (6.0%, 3.5%, 0.0%) 12월 무역수지 (\$31.62B, \$20.00B, \$19.63B) 12월 신규 위안 대출 (454.3B, 550.0B, 522.9B) 12월 통화공급 M2 YoY (13.8%, 14.0%, 13.9%)	韓> 금통위 금리결정 (n/a, 2.75%, 2.75%) 美> 12월 수입물가지수 YoY (n/a, -1.5%, -1.6%) 11월 무역수지 (n/a, \$41.3B, \$42.2B) 유럽> (1/11-12) 체코 대선 中> 12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2.3%, 2.0%) 12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n/a, -1.8%, -2.2%) 日> 11월 경상수지 YoY (n/a, -84.1%, -29.4%) 실적발표> 美 웰스파고
14	15	16	17	18
유럽> 11월 유로권 산업생산 MoM 中> 12월 실질 FDI YoY (미확정)	美> 12월 소매판매액지수 MoM 12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유럽> 11월 유로권 무역수지 SA 日> 12월 통화량 M2 YoY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12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12월 산업생산 YoY 1월 NAHB 주택시장지수 유럽> 12월 유로권 CPI YoY 日> 12월 소비자자기대지수 실적발표> 美 골드만삭스, JP모간체이스	韓> 12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12월 할인점 매출 YoY (미확정) 12월 백화점 매출 YoY (미확정)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2월 건축 허가 MoM 12월 주택건설 착공 MoM 1월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 실적발표> 美 이베이*,뱅크오브아메리카	美> 1월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지수 中> 4Q 실질 GDP YoY 12월 산업생산 YoY 12월 소매판매 YoY 실적발표> 美 인텔*,아메리칸 익스프레스*, GE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이전치는 수정 값 미반영분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